

계시록 8-9장은 어느 시대인가?(2)

- 읽을 말씀 계 11:3-14
- 주요 내용

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, 계시록 8-9장이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(6) 영적인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.

계시록은 간혹 삽입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순입니다. 계시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도,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계시하실 때도 시간순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, 계시록에 일곱 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과 그 후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, 예수님의 재림, 천년왕국, 새 하늘과 새 땅 등 모두 시간순입니다.

한편, 말세의 징조는 7년 대환난이 아니라 재림직전까지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납니다.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“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” 이라고 했는데, 재난은 “해산의 고통” 을 의미합니다.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낳기 위한 진통입니다.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낳습니다. 그런데 진통은 일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나 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해산할 때가 더욱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. 말세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.

먼저, 일곱 인 중 1-4번째 인에서는 네 말 탄 자들이 땅 사분의 일을 해합니다(계 6:8). 또,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1-6번째 나팔까지가 삼분의 일을 해합니다(계 8:2, 6-12, 9:13-18). 또한,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그 대상이 전체적입니다(계 16:1-21). 바다와 강을 비롯해서,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모두에게 재앙이 임합니다. 이처럼 재앙이 사분의 일, 삼분의 일, 전체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 시대를 7년대환난 전(1/4), 전 삼년 반(1/3), 후 삼년 반(전체)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계시록 8-9장은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7) 두 증인이 사역한 1,260일 후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.

계시록에는 천이백육십 일이 두 번 나오는데(11:3, 12:6), 이것은 “마흔두 달” 혹은 “한 때 두 때 반 때” 와 같은 기간으로 대환난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절대다수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인 “천이백육십 일” (11:3)도 후 삼년 반이라고 해석합니다. 그러나 저는 그 기간을 전 삼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.

먼저,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대환난과 신천신지까지 다룹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은 11장 1절부터가 아니라 14절부터입니다. 작은 책을 요한에게 준 천사가 이 계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에게 말을 하고 연이어 두 증인에 대해 말하는데 13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11장 1-13절은 10장의 계시의 연속이지, 작은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. 이처럼 작은 책의 내용이 14절부터라는 것은 그 전에 나오는 것이 후 삼년 반이 아니라 전 삼년 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작은 책은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14절 이전은 당연히 대환난에 대한 계시가 아니며 8-9장에 나오는 내용도 대환난 전인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두 증인이 활동한 천이백육십 일(11:3)이 전 삼년 반 때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

7절의 “**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...**”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.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.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대환난을 일으킵니다. 그런데 두 증인은 그 전에 천이백육십 일간 예언했습니다. 그러므로 천이백육십 일은 후 삼년 반이 아니라 전 삼년 반입니다.

11절의 “**삼일 반 후에 ...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**”는 보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예수님은 대환난 직후에 재림하십니다. 대환난이 끝나는 시간과 재림 사이에는 단 하루도 간격이 없습니다. 만약 천이백육십 일이 대환난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림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두 증인이 죽고 삼일 반이 지났고,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. 그러므로 두 증인이 사역한 천이백육십 일은 결코 대환난이 아닙니다. 더구나 14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화가 온다고 말합니다. 그러므로 두 증인이 사역한 천이백육십 일은 절대 후 삼년 반이 아니라 전 삼년 반입니다.

또한, 전 삼년 반과 후 삼년 반은 둘째 화와 셋째 화로 갈라지는데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과 일치합니다(계 8:13). 그리고 18절이 보여주듯 일곱 번째

나팔은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심판까지가 그 내용입니다. 이것은 셋째 화가 하나의 화가 아니라 대환난 전체임을 보여줍니다. 이것은 계시록 11장 14절 이후의 문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환난은 하늘의 전쟁의 결과입니다.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때인 두 증인의 사역을 대환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

그리고, 15절 “**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**”도 그 증거입니다.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이고 대환난이므로 그때부터 대환난에 대해 예언한 것이 됩니다. 그러므로 당연히 그 전인 두 증인의 활동기간도, 그 전인 8-9장도 전 삼년반입니다.

그런데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치하며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는 세계대전입니다(9:13-21). 그 뒤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과 지진이 나옵니다. 그 뒤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(11:4)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둘째 화는 세계대전이냐? 아니면 두 증인의 사역과 지진까지냐? 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. 답은 세계대전만 둘째 화인데, 그 이유는 첫째로 일곱 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계시록 10장 1절 이하 11장 14절이 삽입입니다. 이것은 그 내용이 여섯째 나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므로, 두 증인의 사역은 둘째 화가 아닙니다. 둘째로, 첫째 화는 오 개월 동안 일어납니다. 두 증인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합니다. 그런데 두 증인까지가 둘째 화라면 두 기간을 다 포함하게 되어 전 삼년 반이라는 기간이 초과됩니다.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역은 둘째 화가 아닙니다.

(8) 계시록 12장은 대환난의 서막, 개론 혹은 총론이다.

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로 대환난입니다(계 11:14). 그러므로 15절부터 대환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런데 12장은 대환난에 대한 서론적인 진술일 뿐 13-14장처럼 대환난을 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먼저, 12장에는 갑자기 여인과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환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. 그 다음은 하늘의 전쟁 즉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대해 말하는데, 그 전쟁의 결과로 대환난이 시작됩니다.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대환난 직전이고 아직 대환난이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기간과 그 전에 나오는 8-9장은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환난이 아니라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입니다.

그런데 11장 2절에 나오는 “마흔두 달” 때문에 그 뒤 두 증인이 활동하는

기간도 대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“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.” 는 적그리스도가 곧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지 실제로 박해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은 대환난 때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. 측량은 현재지만, 짓밟는 것은 미래입니다.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역기간과 8-9장은 전 삼년 반입니다.

(9) 두 장에 재앙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없다.

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예언은 전 삼년 반이 아니라 후 삼년 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(단 9:27). 그런데 계시록 8-9장에 보면 재앙에 대한 예언들만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. 이것은 8-9장이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.

8-9장은 대환난이 아니라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입니다. 전 삼년 반 때 땅의 삼분의 일을 해하는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,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합니다.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역합니다. 그들의 사역은 대환난이 오기 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 달려와 영접해주실 것입니다.

● 나눔과 적용

두 증인의 사역은 대환난이 오기 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.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, 참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맛보며 알아가는 선순환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.